

'84년도 배합사료 수입전망

사료과장 이 범 섭

〈농수산부 축산국〉

1. 서론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으로 육류소비량이 증가됨에 따라 배합사료의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83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5,852천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32%나 증가한 양이다. 종류별로는 양돈사료가 전년대비 무려 75%가 늘어났으며 축우용사료는 24%, 양계용사료는 13%씩 각각 증가하였다.

표1. 배합사료 생산량 대비

	'82	'83	증가율
양계사료	1,980천톤	2,246천톤	13%
양돈사료	1,151	2,013	75
낙농사료	592	710	20
비육사료	693	871	26
기 타	4	12	200
계	4,420	5,852	32

표2. 사료원료 사용실적

	'82	'83	증가율
곡 류	2,821천톤	3,895천톤	38%
강 피 류	661	667	1
식물성 박류	569	832	46
동물성단백질	119	127	7
기 타	259	350	35
감 량	△19	△19	32
계	4,420	5,852	

이와같은 사료의 급격한 생산증가에 따라 사료용 원료 수입량도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

면 식물성 박류수입이 172%로 가장 많고 곡류가 40%, 동물성 단백질이 새로 16,000톤을 수입, 전체적으로 42% 증가 되었다.

2. '84 사료 수급계획

●'84년도의 사료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은 국제적여건으로 국제곡물가격의 급변에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외화절감과 저물가 정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소비를 억제, 수입량을 줄여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활용 가능한 사료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 사용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해 나가며 아울러 사료곡물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료가격안정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4)

첫째: 국내 풀사료자원의 개발이용 확대

●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초지조성은 '84년도에 10천ha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75천ha에 2,700천톤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 논뒷그루 작물은 '83년보다 10천ha가 많은 60천ha를 조성, 1,680천톤, 풋베기작물은 작년도에 비해 2배가 되는 24천ha를 조성, 1,488천톤의 생산량을 각각 공급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자원이 풍부하면서 개발이용이저조한 벃짚의 이용확대를 위해 벃짚 제분발효사료 생산과 암모니아 처리방법의 시범사업을 통해 사료의 가치를 증진토록 하였다.

둘째: 사료곡물 수입량의 증가억제

표 3. '84 사료 수급계획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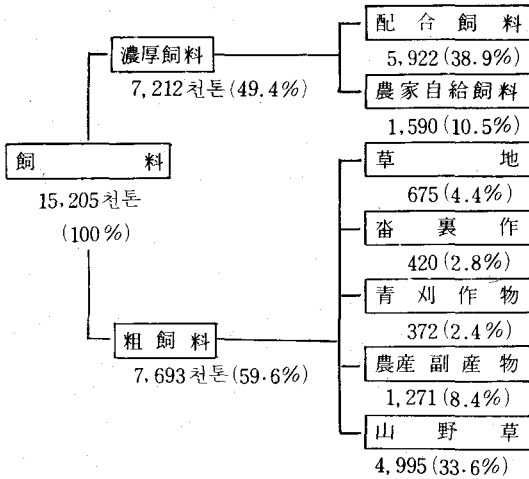


표 4. '84배합사료 종류별 생산계획

종 별	생 산 계 획	%
양 계 사 료	2,238 천톤	37.8
양 돈 사 료	2,015	34.0
낙 농 사 료	754	12.7
비 육 사 료	915	15.5
계	5,922	100

● 늘어나는 사료곡물수입으로 인한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리를 최초로 사료화하여 '84년도에 총207천톤을 사용

할 계획이며

● 배합사료 의존율이 높은 돼지, 닭은 적정두수를 유지하여 배합사료 증가량을 억제하는 한편 소사육에 대한 배합사료 급여 비율을 낮게 책정하므로써 국내 풀사료 이용확대는 물론 가축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킬수있도록 풀사료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배합사료 절감을 위해 사료포장에 절감표어를 표시토록 하는등 대농민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째 : 배합사료 가격안정

● 우선 양축가의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할수 있도록 배합사료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위해 도입곡물사용을 옥수수 위주에서 옥수수 보다 값이싼 수수, 보리, 소맥, 호밀, 귀리등으로 기타곡물사용비율을 높혀 원가를 절감토록 하였다. 따라서 배합사료제품이 종전과 달리 보이는 경우가 있을것이나 이는 품질이 저하된것이 아니라 기타곡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 또, 배합사료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성행해온 장기 외상판매나 할인판매를 통한 과다 경쟁을 지양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사료가격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밝은 내일을 위하여

정직하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뒷전에 물러앉는 시대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뒷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순리를 좇아 사회 각 분야에 과감한 개혁을 하였으며, 우리 낙농인도 자기 주변의 작은 생활의식 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는 사회정화운동의 노력으로 깨끗한 정부, 건전한 사회 구현의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사회를 보다 앞당겨 실

현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부정심리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대 부정심리 추방! 이것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이며, 또한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낙농인 모두 이 3대 부정심리 추방에 앞장서 밝은 내일을 이룩합시다.